

호반그룹, 광주시에 호우피해복구 1억원 쾌척

기부금 전달식...강기정 시장 “지역사회에 온기 전달 감사”

광주시는 24일 호반그룹이 집중 호우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해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강기정 시장, 조역현 호반그룹 부회장, 김영락 커뮤니케이션실장,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역현 호반그룹 부회장은 “호반그룹은 이번 기부가 광주 지역사회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지

속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호반그룹에서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이번 집중호우로 큰 고통을 받고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평가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전한 호반그룹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1989년 설립된 호반건설을 모태로, 올해 창립 36년을 맞았다. 현재까지 약 20만호의 주택을 전국에 공급했으며,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개선 사업, 장학금 지원 등 광주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호반그룹이 24일 광주시청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조역현 호반그룹 부회장, 김영락 실장, 박재홍 적십자사 광주전남 회장이 참석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에서 '제6기 여수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여수시, 제6기 청년정책협의체 출범

4개 분과 운영...청년 체감 정책 발굴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에서 '제6기 여수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여수시 청년정책협의체’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청년 관련 정책 제안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년 중심의 정책 발굴과 시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6기 협의체는 △청년 소통·교육·복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관광·축제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청년 관련 의제를 발굴

하고 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1기부터 5기까지 협의체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정 참여를 통해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청년 페스타 등 지역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시장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정기명 시장은 “청년정책협의체가 시와 청년 간의 소통 통로가 돼, 청년이 머무르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청년’이 중심이 되는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전남도는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서비스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남도, 피서지 숙박·음식점 위생점검 캠페인

휴가철 대비 바가지요금·친절서비스 등 집중 점검도

전남도는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서비스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과 친절서비스 실천 캠페인은 여름 성수기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부당요금 징수와 가격 표시 위반 행위와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8월 14일까지 시군, 관계기관, 숙박·음식 관련 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객실 내부 위

생적 관리 여부 △숙박요금표 게시 준수 여부 △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위생관리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은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도는 최근 발생했던 일부 시군 음식점의 불친절 논란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친절 서비스 협조공문을 보내고, 음식점 종사자 대상 친절·위생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공개강좌 성료

도, 디지털 시대 ‘마음 건강’ 해법 제시 눈길

전남도가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국민 공개강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전남도는 24일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캠페인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도민과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강연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윤 원장이 맡아, 디지털 환경이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SNS·게임·디지털 범죄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여성가족부 ‘2025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우울감 지표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전

년 대비 5%p 상승했으며,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은 27.7%에 달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42.6%로, 2019년 대비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건강한 습관 형성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촘촘한 정신건강 복지체계를 구축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건강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PEOPLE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전남개발공사

함평천 수변공원 복구 봉사활동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2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함평군 함평천 일원 수변공원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최근 내린 폭우로 피해 규모가 큰 함평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으속(ESG) 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해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벌였다.

봉사단은 폭우로 범람한 함평천 주변의 쓰러진 구조물과 퇴적 쓰레기들을 치우고, 자전거 길에 쌓인 토사들을 삽으로 걷어내는 등 피해 지역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장충모 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동부경찰

청소년 절도 예방 스티커 부착

광주 동부경찰은 최근 무인점포를 찾아 ‘청소년 절도 예방 바다 부착형 스티커’를 제작, 점포 내 출입구 등에 부착하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사소한 절도도 명백한 범죄임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의 특성상 청소년에 의한 절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중호 동부경찰서장은 “여름방학이 시작됨에 따라 무인상점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절도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소년이 범죄에 유혹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으로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송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자부모집. 한국지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운세 (음력 6월 1일)

48년생 인복이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
60년생 구체적이야만 실패할 수 있다
72년생 일하지 않아서 당황할 수 있다
84년생 유혹이 가더라도 모험하지 마라
96년생 극복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51년생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이 이롭다
63년생 항상 조심성 있게 행동하라
75년생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천양지차
87년생 충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99년생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54년생 여행 도중에 마음을 바꾸지 마라
66년생 대처를 충분히 하라
78년생 아이디어가 호황을 맞게 될 것
90년생 벌여 놓은 일은 행기는 것도 중하다
57년생 오해가 풀려 화합을 도모한다
69년생 힘의 기반이 생길 것
81년생 대안을 마련하라
93년생 갑자기 생긴 만남은 짧다

49년생 절실한 부탁이 생긴다
61년생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73년생 돈을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85년생 고집을 버리고 대화하라
97년생 걱정스러워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52년생 파문을 던지는 이가 있다
64년생 마음만 있지 취할 수 없다
76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
88년생 머리를 식히려 원형 계획있다
55년생 돈소문이 사실로 변할 수 있다
67년생 유사한 모습이지만 전혀 다르다
79년생 배신이나 사기를 당하게되니 주의
91년생 헛소문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
58년생 자금 유통이 쉽지 않다
70년생 외부적인 요건까지 두루 갖춰라
82년생 늘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라
94년생 말 싸움을 하지 말 것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50년생 관재수나 외과적 수술 할수 있는 운
62년생 이동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다
74년생 친구들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운
86년생 식구가 불어날 좋은 운
98년생 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53년생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 것
65년생 부부 불화의 징조가 보이니 참아라
77년생 아직은 실행의 시기가 아니다
89년생 문서, 계약을 조심하라
56년생 여러가지 일에 얽혀 실속이 없다
68년생 기다리면 성공의 길이 보인다
80년생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조심하라
92년생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59년생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
71년생 손해 보게되니 너무 앞서 가지 마라
83년생 사소한 말 다툼으로 일을 놓친다
95년생 용돈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 것